

+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어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산들에게 ‘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 우리를 덮어 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겹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 그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수난 성지주일

2025년
4월 13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목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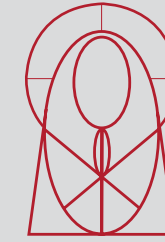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염기선 베드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이사야서 50,4-7

화답송 시편 22(21),8-9,17-18,19-20,23-24(© 27)



후렴. 하느님,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2독서 필리피서 2,6-11

복음 환호송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복음 루카 22,14-23,56

성가 입당 10 봉헌 210, 511 성체 500, 169 파견 115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오석건(안토니오) - 가족
- 이금자(비비안) - 김 스텔라
- 유상옥(베네딕도) - 홍주연(안나)
- 김용한 윤명섭(아오스팅) - 가족
- 정영철(프란치스코) - 최승웅(미카엘) 우선자(이레네) 백영숙(헬렌) 전옥주(글라라)
- 윤재은(베로니카) - 가족 최현지(안토니아) 구윤미(올리아) 김소희(사라) 손흥희(아네스)
- 오용덕(헨리코) - Raphael & Catherine 양영길(그레고리오)

*** 미사지향 (생미사)**

- 박동준(프란치스코) 박정숙(마리아) 우가브리엘 이레네 성아가다 - 오요한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윤달리 - 가족 오세실리아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오경숙(세실리아) - 양영길(그레고리오)
- 루이스 토레스 클라라 토레스 - 변인순(엘리사벳) 전옥주(글라라)
-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아가다) - 이막동(아네스)
- 조규연(세실리아) - 손(노엘라)
- 유미선(클라라) - 김소희(사라)
- 최현지(안토니아) 이서형(요안나) - 구윤미(올리아)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4/6 주일헌금.....	\$1,156(151명)
• 2차헌금.....	\$358
• 감사헌금 (서법석)	\$100
• 교무금.....	\$2,350
임성주(4) 양영길(3~4) 하건철(1~2) 최위숙(4)	
김삼식(3~4) 장수지(1~3) 윤준희(3) 오요한(1~4)	
최영옥(4) 박재영(4~6) 이호용(4) 최현지(5~6)	

*** 새로오신분, 방문해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성당(채플)은 성체가 모셔져 있으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 바닥 청소
-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단속 확인 바랍니다.
- 성당안의 가전제품이나 큰가구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미리 상의해주세요.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올리안나	김삼식(베드로)

*** 2차 헌금 (4/13): 은퇴한 사제 및 수도자**

*** 2025년 성주간 전례 일정**

- 4월 13일 (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4월 17일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저녁7시, 한영통합) 성당 성체조배(자녁 8시30분~10시)
- 4월 18일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오후2시15분) 주님 수난 예식(오후3시)
- 4월 19일 (성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저녁 7시, 한영통합) 성당
- 4월 20일 (주일) 주님 부활 대축일

*** 2025 Bishop’s Annual Appeal**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5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본당 목표금액은 \$39,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지난주까지 약정된 금액은 \$22,434.10 (목표금액의 57.52%)입니다.

*** 예비신자 세례식**

4월 19일 저녁 7시 부활 성야 미사에서 5 명의 예비신자 중 4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공동체의 가족이 될 예비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야미사와 미사 후의 아가페에서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 예비신자:김영은, 성준엽, 임소라, 박정화, 배영준

*** 4월 빵과 포도주 봉헌**

4/13: 이희숙, 허정 4/20: 서정근, 서용숙 4/27: 최혜자, 황분숙

*** 친교 봉사 일정**

4/13 메타천+노스에디슨 5/18 노스브런스워

*** 꾸리아 월례회의**

시간/장소: 4월 13일(주일) 오후1시 / 친교대회요일

*** 2025 부활 포장마차**

일시/장소 : 부활미사후 친교실 및 성당 뒤 주차장
 목적 : 교우 친목 및 사목기금 후원 마련
 내용: 제육덮밥 방어회 해물파전 감밥 어묵탕 떡볶기 음료 및 주류

*** 에디슨 구역회**

시간/장소: 4월20일(주일) / 미사후 친교실

*** 주일학교 기금 마련 탁구대회**

일시: 4월 27일 (주일) 미사 후
 장소: 친교실
 참가비 : \$5
 간단한 스낵과 음료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주일학교를 위한 뜻깊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야고보회 친교모임**

시간/장소: 5월 3일(토) 오후 1시/친교실

*** 반석회 모임**

일시/장소: 5월 3일(토)/ 친교실
 박화성 헬렌, 이희숙 데레사,한종매 안나 자매님 점심 제공
 감사합니다.

*** 노스브런스워 구역모임**

일시/장소: 5월 4일(주일) / 미사 후 친교실

*** 2025 사순시기 실천과제: 단식 금육 독서 복음 필사**

*** 경전읽기**

성경을 읽으며 성경과 관련된 고전에 담긴 깊은 뜻을 새겨보는 강의입니다. (매주 (화) 낮 12-1시 친교실 / 강의: 유병기 베네딕도)

*** 제 1독서 이사야서 50,4-7**

주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제자의 허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필리피서 2,6-11**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루카 23:1-49)**

- 해설자(부제님) +예수님(신부님) ●다른 한 사람(독서자)
- 다른 몇몇 사람(성가대원) ◎군중(신자들)

○ 그때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 예수님께서 대답하였다.
 +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 “이자는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래아 사람이라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 “그자는 없애고 바라빠를 풀어 주시오.”
 ○ 바라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 그러자 백성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 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